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40 헬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특집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10 이영돈 PD의 막거리 X파일(재)	50 인간극장		50 MBC 뉴스특보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 A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지전거 55 트윈생황체(재)	50 지구촌 뉴스	00 MBC 뉴스특보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KBS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인간극장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모큐드라마 <싸인>(재)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TV 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30 뉴스 추적자	00 2014 황제어능구 선수권대회 결승전	35 힐링 투어 아생의 발견	20 MBC네트워크 특선 <육식의 반란II>	30 영성기행 한국인의 명소
2 40 직언직설		00 한국 재발견	10 문화서점 난장 스페셜	00 SBS뉴스 10 2014 한국영양방송대상 최우수상 수상작 비벌의 후에
3 5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뽀뿌야 놀자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키즈CSI 과학수사대 40 헬로 키즈 만들어볼까? 똑딱(재)	10 우리아이기가 달라졌어요(재)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전단 55 트윈생황 체조(재)	25 꾸러기 케라투스 코리요 55 KBS 특선 다큐	30 똑? 똑! 키즈스쿨	00 매일아이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이브뉴스	00 SBS 뉴스파이드 15 KBC재능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MBC 기요 베스트	00 매일아이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일 거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다큐 공감	55 MBC 일일특별기획 <임의 정권>	00 SBS 8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40 드라마 스페셜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 3부>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 A 스포츠 뉴스	00 2014 KBS 글로벌대기획 요리인류 제2편 55 긴급출동 24시	50 다큐멘터리 3일	00 월화 특별기획 <기항후>	00 월화드라마 <신의 선물-14일>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30 KBS 뉴스라인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해외걸작드라마 <삼총사-군인의 길>	15 공간다큐 <그곳>	15 힐링캠핑 기쁘지 아니한가
12 30 헬컴 투 시월드(재)	30 문화 책잡피	45 영상앨범 산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스포츠 특선 야구 읽어주는 남자	35 나이트라인
①:40 갈데까지 가보자(재)	①:10 T타임 40 알약톡톡			①:05 SBS 골프

세월호 침몰 사고 애도 물결

연예인들 예정된 공연 잇따라 연기

김광석 추모공연 수익금 유족 위해 기탁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연예계는 연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면서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사고 닷새째에도 공연 연기 공지는 계속됐고 실종자 구조가 더디게 진행되고 희생자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비통한 심정들이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가수 이승철은 트위터에 “19일 강릉 공연을 26일로 연기했다”며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가수 이정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5월 17~18일로 예정된 단독 공연을 잠정 연기했다. 앞서 그는 19일 트위터에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씩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씩은 물과 고를 같은 X를, 무능력하고 고지식한 돈만 믿어만 밝히는 평정심을 알아서 내려가라. 진짜 필요한 게 뭘지 도대체 언제 알 겁니까. 왜 꼭 이런 일이 터져야 합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린빈스 출신 가수 유익종도 19일 예정된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을 미뤘다. 소속사는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CJ E&M은 20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

렸 ‘슈퍼스타K 6’의 분당 지역 2차 예선을 취소했다. “1차 예선 합격자 전원에게 예선 잠정 연기 상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는 김광석을 추모하는 자리인 만큼 19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예정대로 진행됐다. 출연진과 스태프, 관객은 시작 전 이번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 관계자는 “오늘 공연 수익금은 ‘김광석 추모사업회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유족을 돕는 데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스타들의 SNS는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분통 섞인 목소리로 들끓었다. 2PM의 찬성은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처가 곧 우리 사회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것 또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사회는 병들어 있다는 생각이 다”고 말했다.

영화 ‘관상’ 등에 출연한 배우 김의성도 “이 사건의 초기에는 지나치게 슬픔에 감정이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회일비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마음을 잘 운영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마음이 폭풍을 일으킨다”는 글을 남겼다.

또 배우 문성근은 “참사 5일째인데 어떻게 아직도 급선회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냐. 아이들 두고 내뺐 선원들 다 살아있는데”라고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소녀시대의 서현도 “눈물이 마를 정도로 흘린 눈물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일 텐데, 이제 더는 상처받을 일이 생기지 않길, 기적이 일어나길,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번 일로 희생하신 모든 분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애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가수 솔비도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김선우 시인의 시 ‘이 봄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를 전했다.

20일 강원도 태백 레이스파크에서 열린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출전한 가수 김진표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한 명의 아이라도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차 뒤에 검은 리본을 부착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연향뉴스

EBS

05:40 나의 성공비결	09:40 부모 (아이들 위한 신단)	14:30 부릉!부릉! 부루미즈	19:00 세계 전문록 이블라(재)
06:10 EBS 특별기획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재)	10:10 EBS 문화 센터	14:45 미앤미아보트	19:30 EBS뉴스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종대	19:50 대한민국 화해프로젝트 <용서>(재)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1:20 세계테마기행 (비밀)(재)	15:15 오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모여라 땡땡 스페셜	20:50 세계테마기행 <파우어유기>
07:45 뽀뽀뽀 뽀로로(재)	12:10 특집 다큐멘터리 (버림의 혼, 참매)(재)	16:00 땡땡땡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서해포구기행>
08:00 땡땡땡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50 EBS 다큐프라임 <조선의 법과 정의의 무인록>
08:20 두디다(재)	13:10 줄거너 수학 EBSMATH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2:45 달라졌어요
08:35 방구대장 뽀뽀	13:20 외계인 친구들	16:45 꿈디와 친구들(재)	23:35 영이로운 자연의 세계
08:50 꿈디와 친구들	13:30 꼬마 기사 마미코	17:00 방구대장 뽀뽀(재)	24:05 지식채널e(재)
09:05 비오밤섬의 파오파오(재)	13:45 치료와 친구들	17:30 뽀뽀뽀 뽀로로	24:10 EBS 특별기획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재)
09:2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4:00 헬로 코코콩	17:45 비오밤섬의 파오파오	01:00 EBS 걸작 다큐멘터리
09:35 뽀뽀	14:15 시계마을 티카퐁	18:00 생방송 특! 특! 보너하니	

EBS플러스1

00:00 알짜 귀여운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만찬왕 <국어③-1>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를 기술분석>	12:10 5분 과탐·물리 I	07:30 나의 성공비결	15:40 " <국어④-1>
01:40 올림포스 <영어특혜의 기본 I>	13:05 " <수학 I A형>	08:00 2014 관리인사시험대비강좌	16:20 " <국어⑤-1>
02:30 " <수학 I>	14:00 " <국어 A형>	08:30 의학·치의학·약학 적성시험대비강좌	16:40 " <국어⑥-1>
03:20 뉴 팀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9:00 줄거너 수학 EBSMATH	17:20 망명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⑤-1>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9:10 TV 중학 <국어 I ②>	18:00 TV 중학 <문학③>
05:00 " <한국사상>	16:30 " <세계사>	09:50 " <수학 I ①>	18:40 " <비문학③>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세계지리>	10:30 " <역사>	19:20 배움 플러스 <수학 I ②>
06:40 압축팀스런 <물리 I>	18:10 " <법과 정치>	11:10 " <국어 ③>	19:30 중학 과학 자유탐구 <수학 I ①>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11:50 " <수학 I ②>	20:00 중학 중간·기말 시험대비 문제풀이 <사회 I ①>
08:20 올림포스 <영어특혜 기본 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A형>(재)	12:30 탐험신공 <수학 I ③>	20:40 " <과학 I ①>
09:10 " <수학 I>(재)	21:00 " <한국사>(재)	13:10 " <수학 I ④>	21:20 " <과학 I ②>
10:00 뉴 팀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회법과 직권독서와 문법 A형>	14:30 " <수학 I ⑤>(재)	22:00 " <역사 I ①>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23:00 " <국어영역 문법 디지털 A형>	15:10 스텝랜드	22:40 TV 중학 <수학 I ⑥>(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1일(음 3월 22일 壬戌)

子	36년생 잊고 있다면 놓칠 수도 있겠다. 48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 60년생 정성과 솔씨에 따라서 결과가 관이하리라. 72년생 흔들림이 보인다. 84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리라. 행운의 숫자 : 21, 60	午	42년생 파헤치는 것보다는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좋다. 54년생 목직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관함만 나타난다. 66년생 활동만 잘 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다. 78년생 관리를 잘 해야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58, 34
丑	37년생 안배와 활을 잘 해야 하겠다. 49년생 가벼운 징후가 현상으로 비화 되지 않도록 하자. 61년생 완벽을 기하려다가 기회를 놓칠 수다. 73년생 관련시킨다면 문제점이 생긴다. 85년생 해상일 뽀이다. 행운의 숫자 : 80, 04	未	43년생 사소함을 초월해야 대국에 임하느니라. 55년생 파급효과까지 예상하고 판단해야겠다. 67년생 내부가 시끄러워서 진정 시키려고 애를 먹을 수다. 79년생 굳이 내면까지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9, 59
寅	38년생 막연하다면 허방을 짚을 수도 있느니라. 50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무탈할 것이다. 62년생 낙수물로 바위도 풀리는 법이다. 74년생 가려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많은 모순점을 낳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68, 95	申	44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같 길이 드러나리라. 56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8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생기리라. 80년생 복잡다단한 것이 단일하게 모아지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85, 50
卯	39년생 잡다함을 차치하고 과감해야만 길조를 삼승 시킨다. 51년생 소중하게 여겨 왔던 것이 행운으로 이끈다. 63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75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4, 69	酉	45년생 상당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보인다. 57년생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안전하다. 69년생 혹독한 시련이 앞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81년생 중간 믿어 버리는 속담을 명심하라. 행운의 숫자 : 88, 10
辰	40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52년생 동반하는 국세에 활로가 보인다. 64년생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돌출하는 성향에 주의해야 한다. 76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70, 15	戌	46년생 앞서서 걱정해 봤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58년생 가급적 빨리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 70년생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82년생 과감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96, 98
巳	41년생 잘 파악해야 응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53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노력하자. 65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77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행운의 숫자 : 33, 41	亥	47년생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노파심은 거두어도 된다. 59년생 맹자없이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71년생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83년생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행운의 숫자 : 29, 7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스타들 여객선 사고에 온정 이어져

송승헌·류현진·영국가수 코니 탈벗 등 기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연예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 송승헌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족지원과 구조활동에 힘써 달라며 1억원을 구세군에 기부했다.

소속사 더 좋은 이엔티 관계자는 20일 “송승헌 씨가 소속사에 알리지 않은 채 개인 명목으로 구세군에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그는 침몰 사고에 대해 계속해서 안타까움을 바라고 있다가 이날 때일수록 나눔이 꼬

앞서 송승헌은 트위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애도를 표하고, 실종자들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승헌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2억 원을 기부했다.

배우 윤주완도 구세군을 통해 세월호 침몰 참사 구호성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은 씨는 “밤낮 뉴스를 보면서 기적을 바라고 있다가 이날 때일수록 나눔이 꼬

리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연락하게 됐다”며 “더 많은 보탬이 못돼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구세군이 전했다.

그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나눔활동에도 직접 참여할 것이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끝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내한하는 영국 가수 코니 탈벗(Connie Talbot·14)도 애도의 뜻으로 공연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LA 다저스의 투수 류현진도 1억 원 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향뉴스

TV 하이라이트

천국의 놀이터 '아후스 섬' 구봉서의 89년 인생 속으로 포르투스의 무죄를 밝히려다...



세계테마기행(EBS·오후 8시50분)은 지상 최후의 낙원이라 불리는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아름다운 섬으로 손꼽히는 마누스의 아후스 섬. 한 폭의 유화 그림을 보는 듯 한 풍경이 펼쳐지는 아후스 섬의 바다는 에메랄드처럼 맑고 투명한 아이들이 뛰노는 천국의 놀이터이다. 남태평양의 뛰어난 아후스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난다. 마침 아후스를 간 날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마을 공동 작살 고기잡이’가 있는 날이다.

수십 대의 카누를 나누어 타고 바다로 나가는 마을 청년들. 에메랄드빛 바다와 어울려진 카누들의 행렬은 남태평양의 장관을 연출한다. 바닷속이 흰하늘 들여다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남태평양의 풍속은 아후스 사람들과 어울려 남태평양 낙원을 만들어낸다.

그때 그사람(채널A·오후 8시30분)은 한때 이름 석 자로 대한민국을 배꼽 잡게 만든 희극인 구봉서. 그는 1945년 악극단인 ‘태평양극단’의 희극배우로 시작해 70여 년 세월 동안 400여 편의 영화와 980여 편의 라디오 공작을 추진기 위해 파리에 나타난다. 마르샤는 5년 전, 20명의 송사가 몰살당한 사건의 배후에 사보이공작이 있다고 주장하고 함께 사건을 조사하던 삼총사와 달타냥은 송사대장 트레빌을 의심하게 된다.

이번 편에서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던 포르투스가 시체 옆에서 깨어난다.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포르투스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돼 파리의 빈민굴인 ‘기적의 궁전’으로 끌려간다. 동료 송사들은 포르투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해외걸작드라마 ‘삼총사’ 5편(KBS2·밤 11시55분)은 “17세기 파리, 달타냥과 삼총사 친구들이 추기경의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한편에서는 아라미스의 옛날 친구이자 송사대 동료였던 마르샤의 사보이 공작을 추진기 위해 파리에 나타난다. 마르샤는 5년 전, 20명의 송사가 몰살당한 사건의 배후에 사보이공작이 있다고 주장하고 함께 사건을 조사하던 삼총사와 달타냥은 송사대장 트레빌을 의심하게 된다.

이번 편에서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던 포르투스가 시체 옆에서 깨어난다.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포르투스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돼 파리의 빈민굴인 ‘기적의 궁전’으로 끌려간다. 동료 송사들은 포르투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